

# 또 메르스 비상...철저한 초동방역 나서야

광주 밀접접촉자 자택 격리

광주시 비상대책본부 가동  
3년전 대응 노하우 총동원  
일상접촉자들 꾸준히 관찰  
국가지정치료병상도 점검

3년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광주에서도 확진자와 2m 이내 있었었던 밀접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메르스 잠복기가 2~14일인 점을 감안해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 감시 등을 토대로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지난 2015년 전남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노하우도 총동원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 A(61·서울)씨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밀접접촉자 22명 중 광주지역 거주자 1명이 포함된 데 이어 이 지역에도 일상접촉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 일상접촉자는 각각 11명, 1명이다. 일상접촉자는 확진자와 2m 거리 이내에 있지는 않았으나 함께 비행기를 탔던 이들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감염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서울 메르스 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1명이 밀접접촉자로 확인돼 자택격리 중이며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능동감시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와 자택격리 요령 등 교육을 받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보건소는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증상이 나타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중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 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는지 주시할 방침이다. 밀접접촉자는 오는 21일까지 자택에 격리되며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며 가족도 2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시는 또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상접촉자' 11명에 대해서도 메르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지 관찰하고 있다.

시는 만일 상황에 대비해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이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마쳤다. 이 병상은 전남대병원(7개 병상)과 조산대병원(5개 병상)에서 운영 중이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운용하고 있다. 격리병상, 검사실과 면회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 음압병실은 일반 환자와 보호자와 직원들의 출입구가 구분되며, 일반 병실과 달리 보안이

갖춰진 몇 겹의 출입문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전남지역 감염병 격리치료시설은 모두 49곳이다. 국가지정병원인 국립목포병원 1곳으로, 읍면병상 10병상이 갖춰져 있다. 도지정 시설은 목포 3곳과 여수·순천·장흥 각 1곳씩, 시·군지정 시설은 각 지역 병·의원 42곳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밀접 접촉자 발생 상황과 대응 매뉴얼 등을 전달하고 현장 출동요원들이 착용하게 될 개인보호구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전남도도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격리 치료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환자 발생 후 총 186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이 중 지방이었던 환자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38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2015년 6월 보성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전남에서는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600여명에 달했고, 광주에서도 의심환자 29명과 격리대상자 174명(자택격리 93명, 일상격리 81명)을 관리하는 등 메르스 비상이 걸렸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뇌물 받고 사업비 몰아준 한전 간부 6명 집행유예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몰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강산 판사)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각 200만~2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 6명은 한전 모 지역본부 간부직원(1~3급)이다. 이들은 관할 지역의 전기 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을 악용해 전기공사 업자에게 임의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편의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2017년 한해에만 업자 3명에게 받은 뇌물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원에 이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재치있는 경찰

새벽 순찰 광주경찰 2명, 음주 차량 제지 역주행 참사 막아

전국적으로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벽순찰에 나선 광주 경찰이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제지해 대형참사를 막아냈다.

9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30)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께 광주 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그랜저IG 차량을 몰고 거주지인 광주시 동구 율리동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불안한 주행을 이어갔고, 같은날 새벽 4시께 서구 마름동 모 웨딩홀 인근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서부경찰서 송병학 경위와 장재원 순경의 시야에 포착됐다.

송 경위 등은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의심하고 경고방송과 싸이렌까지 울렸지만, 김씨는 시속 60km 속도로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

이후 1km 정도를 더 질주하던 김씨의

차량은 서구 벽진동 서창IC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뒤 광주제2순환도로 출구까지 200여m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송 경위 등은 재빠르게 순찰차로 김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며, 즉시 모를 교통사고에도 긴급 대응했다.

김씨는 이날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정지기준(0.05%)이하인 0.048%로 훈방조치 됐지만, 역주행 운전으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경찰은 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김씨는 "경찰차가 뒤따라 오는지 몰랐으며, 200여m를 더 가서 진입해야 하는데 차선을 착각해 역주행을 했다"면서 "역주행에 따른 대형사고를 막아준 경찰분들의 조치에 감사한 마음이다. 대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어이없는 경찰

교통사고 사망 고교생 사진 무단으로 교육자료 활용 물의

전남 강진경찰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고교생의 사고모습이 담긴 사진을 교육자료로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강진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사고예방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경찰이 직접 만든 2분 짜리 영상이 활용됐는데, 지난달 강진에서 사망한 17군 A(17)군의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사진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고등학생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육 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곧바로 사과하고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경찰이 이날 영상자료로 보여준 사고사진속 학생이 이날 교육을 받은 학

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던 친구 A군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교육 후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사진 속 학생이 최근 숨진 A군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A군의 생전 행동 등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목숨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친구들은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고, 유족은 학교와 경찰측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고등학생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육 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곧바로 사과하고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강진·남침철 기자 chou@

## '비야냥 문자'에...식당 동업 50대 남녀 동창끼리 폭력



○...식당을 동업하던 50대 남녀 초등학교 동창이 은밀한 부위를 비야냥거리라는 등 감정을 자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폭력을 휘둘러 나란히 경찰서행.

○...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5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자 동업자인 B(여·51)씨로부터 "너, XX(은밀한 부

위) 수술했지?"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고 격분해 수도꼭지와 연결된 고무 호스를 가져와 B씨에게 물을 뿌리고 발길질까지 했다는 것.

○...B씨도 이에 맞서 식당내 음식물 쓰레기통을 A씨에게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식당 운영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듯 하다"면서 "결국 서로 감정이 실린 문자를 주고 받다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

## 잠복기 2~14일 발열·호흡기 증상...치사율 최고 46%

## 해외여행 자제하고 의심증상 땀 즉각 보건당국 알려야

메르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치사율이 최고 46%에 달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중동 아라비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 병에 걸리면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 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보인다. 기저질환자나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다.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은 없지만 치료제는 아직 없다.

전파경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낙타 접촉, 낙타우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비말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동 여행자에 대한 메르스 예방 수칙으로 ▲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메르스환자 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65세 이상, 어린이, 임신부, 암 투병자 등 면역저하자는 여행 자체를 자제할 것 ▲ 여행 중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농

장방문을 자제하며, 특히 동물(특히, 낙타)과는 접촉하지 말 것 ▲ 진료 목적 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하거나 사람이 분비는 장소는 되도록 찾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말 것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 감염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하고 입국 때 설사, 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할 것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